

# ‘술테마박물관’ 홍보 전력

### 완주군, 6월말까지 토·일 모악산, 목요일 지방행정연수원·한옥마을서

완주군은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을 지역의 관광명소로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이달 말부터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이면 경각산과 구이저수지가 맞닿아 수려한 경관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은 2015년 10월 개관해 술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담은 5만5000여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곳은 다양한 주제별 테마형 전시 공간 및 발표체험·교육·시음 등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은 올해로 개관 3년차를 맞는 박물관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주 주말(토·일)에는 모악산에서, 목요일은 지방행정연수원과 한옥마을로 찾아가는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박물관 문화시설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 매주 화요일 박물관 가는 날로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5월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박물관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을 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유치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발표관련 체험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데, 관심있는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90-3841~7)로 사전 문의하면 된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은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들이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오감민족 박물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무주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기간 연장

### 2020년 5월 22일까지... 재산권 행사 불편 등 감소 기대

무주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지만 특례법이 연장·시행되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분할

이 가능하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라는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063-320-2262)에 하면 되며 이후 소요되는 측량비, 취득세, 감정료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송규완 지적담당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소송비용도 감소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특례법 시행기간이 연장이 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특례법에 따라 3월 28일 현재까지 무주군에 접수된 분할신청 건수는 총 24건으로 이 중 23건이 처리·완료됐으며 1건은 진행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서울 ‘가락물’ 입점

### 전국 팔도 지자체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진안군은 농특산물의 최대 유통시장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에 위치한 전국 팔도 지자체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인 ‘가락물’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입점업체 설명회를 거쳐 진안군 우수 농·특산물 18개 가공업체를 선정했으며, 현재는 50여 품목을 입점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가락물’은 하루 12만 명의 유동 인구가 있는 송파구 가락시장에 바로 인접해 있고, 반경 5km 이내에는 롯데월드, 코엑스 등이 위치해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상권을 가지

고 있어 전국의 지자체들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4월초 정식 오픈 때까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많은 가공업체가 입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전국 지자체와 소비자, 중도매인 등이 ‘가락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진안지역 우수 농산물 유통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한방 특구인 진안고원 원단의 문화·관광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경찰, 선거사범 모의훈련

무주경찰서(서장 내영민)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무주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선거 운동원이 둔봉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선거상황실 수사 전담반, 강력계 형사, 112순찰요원 등이 현장에 투입돼 실제 범인 검거작전을 방불케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숲은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유산

### 완주군, 제72회 식목일 나무심기 기념행사 개최

완주군은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식목일 나무심기 기념행사를 28일 만경강 수변생태공원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등 공무원,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회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최근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환경변화로 인해 나무심기와 산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나무심기행사는 피톤치드가 다량 방출돼 아토피 치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편백나무 900본을 식재했다.

박성일 군수는 “황사, 사막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림의 중요성과 나무심기를 통해 함께 이룬 숲들은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유산”이라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정성껏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 310ha에 편백나무 등 10종 77만본을 식재해 자연재해 예방과 경제적 산림자원 조성으로 산림바이오에너지산업 확보와 탄소흡수원 확충을 지속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무주농업인 400여 명 풍년농사 기원

### 군, 풍년기원제 개최

무주군은 28일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잔디광장에서 한 해 농사의 대풍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농민회(회장 강우석)가 주관한 것으로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과 백경태 도의원, 전농전북도연맹 김성곤 부의장 등 내빈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소형농기구 400여 점이 전시·공유된 농기구 나눔 행사에도 함께 했다.

황정수 군수는 “농업인이라는 자부심이 올해 농사를 대풍으로, 무주농·특산물을 최고의 상품으로, 무주농업을 든 버는 알차게 농업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이 자리가 우리들의 자부심을 키우고 열정에 불을 지피는 계

기가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산지유통센터의 저장능력을 키우기 위해 저온저장고를 1,000㎡로 증축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판촉행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저장능력은 300톤에서 1,770톤까지 확대되며 하루 처리능력도 20톤에서 4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물량 역시 100톤에 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7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농가조직화와 운영활성화, 역량강화와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박차

진안군은 농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촌 마을에 100Mbps급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해소와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을 올해까지 8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34억7,200만원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투자해 추진하고 있다.

2016년까지 254개 대상 마을 중 221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8년차로 33개 마을에 5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을 완료하면 모든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진장소방서

청명·한식 화재주의보 발령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청명·한식 기간 동안 농·밭두렁 화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6년 4월 인야화재는 최근 3년 대비 40건(1일 평균 1.4건)감소하였으나, 청명·한식 기간 화재는 최근 3년 대비 27.3건(1일 평균 0.1건)의 화재가 증가하여 발생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예방에 가장 취약한 시기인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농·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무단 소각을 금지하고 ▲입산 시 라이터 및 성냥등 인화물질의 소지금지와 흡연을 금지하는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파종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장수군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작물 피해예방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8주간 ‘파종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장수군은 최근 농경지 주변에 유해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작물 피해 발생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농민들의 시름을 해소해 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2개 반 13명으로 구성해 포획대상 5개종(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어치)에 대해 출몰·피해신고 접수 시 긴급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 眞心 홍삼주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